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 소수자(LGBTQ) 정체성으로 인해 명예 제대를 거부당한 재향 군인에게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수많은 군인이 단순히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제대를 당했습니다. 부상에 모욕까지 더해, 그들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성 소수자 재향 군인들에게 우리가 그들 뒤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명예 회복법(Restoration of Honor Act)을 제정하는 법안(S.45B/A.809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 제정을 통해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명예 제대를 거부당한 재향 군인들에게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와 유사한 정책에 따라 수십만 명의 재향 군인들이 명예 제대 아래의 제대를 하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개인은 재향 군인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군인 제대 결정은 연방 정부에 의해서만 공식적으로 변경될 수 있지만, 명예 회복법은 이러한 재향 군인들이 뉴욕주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단순히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제대를 당했습니다. 부상에 모욕까지 더해, 그들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우리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성 소수자(LGBTQ) 재향 군인들에게 우리가 그들 뒤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법안은 또한 군사적 성적 외상, 외상성 뇌손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결과로 명예 제대 아래의 제대를 하도록 명을 받은 재향 군인의 혜택에 대한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이로 인해 뉴욕은 이러한 외상이나 성 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명예 제대를 하지 못한 재향 군인의 혜택을 회복시키려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Brad Hoylman 상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5년에 제 사무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에 근거하여 명예 제대를 하지 못한 성 소수자 재향 군인에게는 50개 이상의 뉴욕주 혜택 제공이 거부되었습니다. 동성애 미국인들이 거의 10년간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 세대의

미국인들은 군 제대 상태로 인해 여전히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 소수자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Andrea Stewart-Cousins** 다수당 지도자가 이끄는 새로운 상원 다수당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명예 회복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불의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와 협력해 주신 공동 후원자인 **Didi Barrett** 의원님 그리고 이 법안을 수년 동안 옹호해 주신 **Buchwald** 의원님, 수십 년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있는 **SAGE** 등 성 소수자 인권 단체, 그리고 오늘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Didi Barrett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이 집으로 돌아올 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존경과 지지뿐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성 소수자 공동체의 수많은 재향 군인과 외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 및 행동상 건강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런 존경과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서류(Bad paper)'는 군에서 복무했던 남성과 여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됩니다. 제정된 명예 회복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이 부도덕한 행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하고 우리가 이 끔찍한 잘못을 바로잡도록 도와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안의 서명은 뉴욕의 성 소수자 커뮤니티의 보호 및 평등을 강화하려는 **Cuomo** 주지사의 최근의 노력입니다. 지난달 뉴욕은 모든 재향 군인 서비스 직원이 성 소수자 및 **HIV+** 역량 교육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주 재향 군인 서비스부(Division of Veterans' Services)의 모든 직원은 성 소수자 및 **HIV+** 군인 및 재향 군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제공자 및 옹호자들을 교육하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MMAA** 레인보우 실드(MMAA Rainbow Shield) 문화 역량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난 8월,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트랜스젠더 및 성 부적합 개인을 위한 의료 보호의 역행에 대한 여러 기관의 반대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및 아동 및 가족 사무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트랜스젠더 및 성 부적합 개인에 대한 차별 보호를 훼손하고 건강 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비차별 보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보험 유형을 제한하는 미국 보건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제안을 포기할 것을 연방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Cuomo** 주지사는 형사 소송에서 "동성애자와 트랜스 공황" 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 정부의 트랜스젠더 군사 금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지사는 군대 내 차별을 지지하고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연방 정부의 혐오 정책에 의해 쫓겨난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도록 재향 군인 서비스부, 육해군 사무국(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그리고 인권부에 지시했습니다. 지난 1월에 **Cuomo** 주지사는 성별 정체성이나 표현에 근거한 고용주, 교육 기관, 임대주, 채권자 및 기타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랜드마크 법안인 성 표현 비차별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